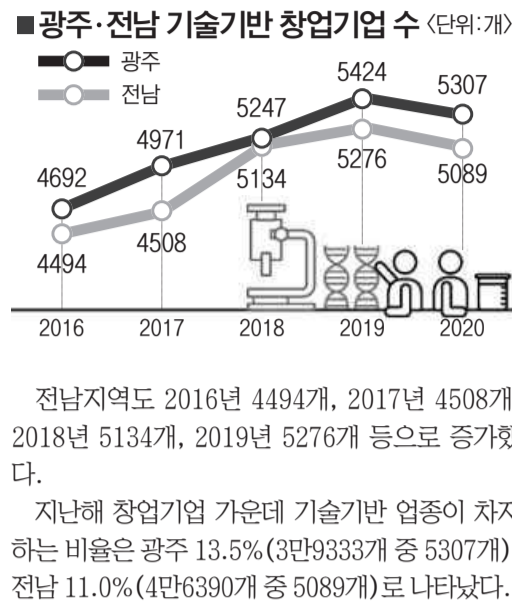


광주·전남 기술기반 창업 열기 식었다

기술 창업기업 수 광주 5307개·전남 5089개...집계 이후 첫 마이너스 창업 1~2위 도소매·부동산업...광주 농어업 144% 증가한 237개

광주·전남에서 3년 연속 증가하던 기술기반업종 창업이 지난해 뒷걸음질 쳤다. 지역에서는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등 서비스업 창업이 강세를 보였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광주 5307개·전남 5089개로, 전년보다 각각 2.2%(-117개), 3.5%(-187개) 감소했다. 전국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총 22만8949개로, 지난 2019년(22만607개)보다 3.8%(8342개) 늘었다. 지난해 기술기반 창업이 증가한 사·도는 9곳, 감

소한 지역은 8곳이었다. 강원지역 기술기반 창업이 18.9%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경기(12.9%), 충남(5.4%), 서울·전북(각 2.8%), 충북(2.2%), 제주(1.2%), 대전(0.7%), 인천(0.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술기반 창업은 지난 2016년 통계를 낸 이후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광주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2016년 4692개, 2017년 4971개, 2018년 5247개, 2019년 5424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창업기업 가운데 기술기반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광주 13.5%(3만9333개 중 5307개), 전남 11.0%(4만6390개 중 5089개)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에 비해서 기술기반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는 15.5%에서 13.5%로, 2%포인트 감소했다. 전남지역도 12.3%에서 11.0%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광주 창업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52.3%)은 부동산업과 도·소매업이 차지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1만504개(26.7%)에 달하는 부동산업 창업이 이뤄졌다. 도매 및 소매업이 1만56개(25.6%)로 뒤를 이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 5161개, 건설업 2457개, 운수 및 창고업 2131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56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51개,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95개, 교육 서비스업 1125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111개, 제조업 1075개, 정보통신업 453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54개, 농업·임업 및 어업 및 광업 237개, 금융 및 보험업 191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9개,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17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한 증감율을 살펴보면 농업·임업 및 어업 및 광업이 144.3%로 가장 증가 폭이 컸고,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27.0%)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체 창업의 42.9%를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이 차지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만404개(22.4%)의 도·소매업과 9519개(20.5%)의 부동산업 창업이 이뤄졌다. 창업기업 증가율이 가장 큰 업종은 부동산업(71.6%)이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1%) 창업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화장품 연중 최대 혜택...롯데백화점 광주점 '코스메틱 페어'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이 2층 '설화수' 매장서 인기 화장품 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30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 할인·마일리지 혜택 등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포함한 전국 롯데백화점이 오는 30일부터 열흘 동안 화장품 할인전을 벌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9일까지 42개 화장품 브랜드가 참여하는 '코스메틱 페어'를 진행한다. 참여 브랜드는 설화수, 후, 랑콤, 키엘 등 국내외

유명 화장품이다. 가정의 달 수요를 겨냥해 선물 세트는 60여 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롯데백화점 모바일 앱 뷰티플러스 가입고객에게 7~15% 할인 혜택을 준다. 구매 금액에 따라 10% 상당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화장품 브랜드별로 5~10% 추가 상품권을 받고 마일리지를 동시에 적립할 수 있다. 화장품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일상화로 지난해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1분기에는 기초화장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22일 롯데백화점 화장품 상품군 매출은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랑콤, 키엘, 입생로랑 등이 소속된 로레알 코리아와 단독 온·오프 통합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품목(7종)을 구매할 때 롯데백화점몰에서는 4월29일부터 5월9일까지 선착순으로, 백화점 매장에서는 오는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1인 1회에 한해 선착순 한정으로 오픈포인트 5000점을 추가 적립해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상의 '포스트 코로나' 5대 핵심전략 추진

신규·중점 추진계획 심의·의결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6일 제24대 1차 상임의회의를 열고 5대 핵심전략과 신규·중점 추진계획과 추경예산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향후 3년간 제24대 정장선 회장 임기동안 '지역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씩씩탱크', '회원기업 성장과 발전의 동반자'를 사업목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발전 선도 ▲지역주력 및 미래유망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발전 지원 ▲회원기업 상생발전 협력사업 확대 ▲상의 재정확충 및 내부역량 강화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핵심 성과지표로는 2023년까지 자체 수입에 산 50억원, 회원 2600개사, 회비 25억원, 정부·지자체 협력사업 30억원으로 확대 등을 설정했다. 이밖에 신규과제 26건을 포함한 총 63건의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기업의 대응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지원, 유망기업 미래 핵심 기술 융복합

패키지 지원, AI·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기업의 대응력 향상 지원 등 신규사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회원사의 경영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기업애로해소와 회원사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산업별 상시 모니터링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혁신 지원 강화, FTA활용지원센터 확대 운영, 중소기업 맞춤형 입찰 정보제공 등 사업도 확대한다. 여기에 우수회원 업체 인증사업 추진, 회원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추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비대면 사이버 연수원 개설 등 신규사업을 전개하고, 회원사를 위한 문화지원 사업을 추가해 회원간 인적 네트워크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회원사와 소통하고 화합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업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길어진 거리두기에 간편 양념장 '인기'

광주 이마트 1~4월 매출 25.6%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밥'이 늘면서 각종 양념장이 인기다. 27일 광주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들 매장의 1월1일~4월25일 양념소스 매출은 1년 전보다 25.6% 증가했다. 양념소스 매출 전년비 증가율은 2019년 12.7%, 2020년 20.1%, 2021년(1~4월) 25.6%로 해마다 오르고 있다. 올해 매출이 급증한 건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서 밥 먹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각종 요리소스가 각광받았기 때문이다. 양념장 종류는 현재 1000가지에 육박하며, 초보부터 고급 요리까지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황라장' '황두장' 등 중화 음식과 '호이신', '스리라차'가 유명한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다양한 국가를 대표하는 양념장도 수입되고 있다. 이마트는 기존 제품보다 15~20% 저렴한 '노브랜드' 소스소일 50여 종을 내놓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